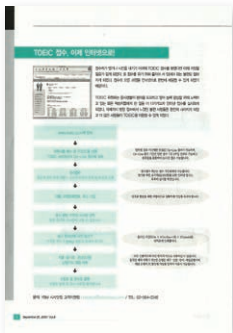


뉴스레터로 보는 TOEIC History

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는 수험자들에게 TOEIC, TOEIC Speaking & Writing Tests의 유용성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자 지난 1997년부터 뉴스레터를 발행해왔다. 1호가 발행된 20년 전부터 현재 100호가 발행되기까지 뉴스레터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을까? 뉴스레터에 실린 기사를 통해 TOEIC의 역사를 살펴보자.

8호 TOEIC 접수, 이제 인터넷으로



국내의 비즈니스 환경이 인터넷으로 이동하면서 2000년대 초반, TOEIC도 인터넷 접수를 시작했다. TOEIC 인터넷 접수는 접수처가 멀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워 원하는 때에 접수하지 못했던 수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었다. 뉴스레터 8호에서는 인터넷 접수 시작을 알리면서 접수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소개했다.

1997.08

2000.09

2003.06

1호

TOEIC 성적표에 응시자 사진 포함



TOEIC 성적표로 수험자의 얼굴 확인할 수 있다.
TOEIC 성적표에 응시자 사진 인쇄

TOEIC 위원회는 오는 7월 제64회 TOEIC 정기시험부터 성적표에 응시자의 사진을 인쇄하여 남기로 하였다. 이는 그 동안 TOEIC 성적표의 위, 변조를 방지하기 적용하였던 BAR CODE 보다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성적표의 위, 변조 뿐 아니라 대리 응시자를 최종적으로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TOEIC 위원회는 이 작업을 위하여 고성능 스캐너와 사진을 포함한 성적표를 분당 인쇄할 수 있는 초고속 프린터를 구비하였다.

제64회 TOEIC 정기시험 (1997.07.20)부터 성적표에 응시자 사진이 포함됐다. 뉴스레터 1호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성적 위변조 및 대리 응시 방지 등 기대 효과를 소개하는 한편, 고성능 스캐너와 사진이 포함된 성적표를 분당 인쇄할 수 있는 초고속 프린터를 갖췄다고 알렸다.

18호

국가고시 TOEIC 열풍



뉴스레터 18호에서는 특집 기사로 '국가고시 TOEIC 활용 열풍'을 소개했다. 지난 2003년 정부에서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의 영어 과목을 TOEIC을 비롯한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영어시험 시장에서 TOEIC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 위 기사에 따르면 외무고시, 사법고시는 2004년, 행정고시, 기술고시, 입법고시, 변리사 시험은 200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기준 점수는 700점이다.

31호

TOEIC 성적표 위·변조 방지 '성적 조회 서비스'



입사, 승진, 대학교 졸업, 국가고시 등 사회 전반에서 TOEIC 시험을 활용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는 TOEIC 성적표를 위·변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TOEIC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TOEIC 성적표 위·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뉴스레터 2005년 12월호에서는 성적 조회 서비스 시행 배경, 내용, 목적 등을 Q&A방식으로 상세히 소개했다.

2005.08

2005.12

2006.08

29호

2006년 5월 New TOEIC 시행



35호

12월 9일, TOEIC Speaking & Writing 첫 시행



2005년 8월 발행된 뉴스레터 29호에서는 NEW TOEIC 시행을 예고하고, 수험자들이 변경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2005년 7월 13일에 열린 기자설명회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함으로써 NEW TOEIC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을 잘 보여주었다. NEW TOEIC에는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의 발음이 추가되었고, 두 개 지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포함되는 등 변화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반영됐다.

35호에서는 첫 시행을 앞둔 TOEIC Speaking & Writing의 개발 배경, 출제 분야, 측정 내용, 시행 방법 등을 소개했다. TOEIC Speaking & Writing은 IBT 방식을 CBT로 바꾸는가 하면 2015년 5월, 일부 문제 유형을 개정하는 등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올해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61호

TOEIC 통합성적표 발급



TOEIC과 TOEIC Speaking 성적을 모두 준비하는 수험자가 늘어나면서 YBM 한국TOEIC위원회에서는 2011년 1월 3일부터 TOEIC 통합성적표를 발급했다. TOEIC 통합성적표에는 TOEIC,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성적이 모두 포함된다. 뉴스레터 61호에서는 새로 발급하는 TOEIC 통합성적표 이미지를 공개하고, 구성 및 특징 등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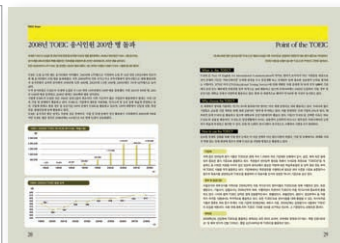
2009.02

2010.12

2011.04

50호

2008년 TOEIC 응시인원 200만 명 돌파



2008년 TOEIC 응시인원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내에서 TOEIC이 시행된 지 25년 만의 일이다. 50호 <TOEIC ISSUE>에서는 도입 초기부터 2008년까지 응시인원 증감 추이를 소개하고, ‘한국인 10명 중 3.8명이 TOEIC에 응시했다’고 밝혀 TOEIC이 대한민국 대표 영어시험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알렸다.

63호

YBM BRAND APP 출시



뉴스레터 63호에서는 통합성적표 발급 소식을 전하는 한편, 2010년 12월 28일에 출시된 YBM BRAND APP을 소개했다. 수험자들은 스마트폰에 YBM BRAND APP을 설치해 TOEIC 접수 및 성적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88호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영어 과목 TOEIC으로 대체



88호 <TOEIC Spotlight>에서는 ‘2017년부터 7급 국가공무원 영어 과목을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한다’는 인사혁신처의 방침을 소개했다. 외교관 후보자, 입법고시,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 외에도 변리사, 경찰 간부, 소방 간부 등 TOEIC을 활용하는 국가고시 및 국가 자격증을 알렸다. 한편, 국가고시를 위해 2014년 TOEIC 정기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평균 성적이 시험별로 사법고시 676점, 행정기술고시 643점, 외무고시 642점, 입법고시 664점으로 나타났다.

2013.08

2015.06

2016.06

77호

TOEIC, TOEIC S&W Tests 한국영어교육학회 공식 인증 취득



2013년 여름, TOEIC, TOEIC S&W Tests가 한국영어교육학회로부터 공식 인증을 취득했다. 뉴스레터 77호에서는 TOEIC, TOEIC S&W Tests가 학회 인증 심사 기준 전(全) 항목을 충족했다고 전하면서 TOEIC, TOEIC S&W Tests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95호

新 TOEIC, 이렇게 달라졌다



2016년 5월 신(新) TOEIC이 시행됐다. 뉴스레터 95호에서는 수험자들을 위해 신(新) TOEIC의 주요 변경 사항을 상세히 소개했다. 신(新) TOEIC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 시행되는 만큼 수험자와 영어 교육 관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